SAEROUN QT

2026
10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역대상] 하나님이 네 앞에서 나아가시리라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패션관 10층 새로운홀



Saeroun church

QT COLUMN

2026. 10

AI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AI가 일상으로 들어온 지 4년도 안 됐지만 우리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맛집을 찾아 달라는 소소한 주문부터 여행 계획, 주식 투자, 노후 설계까지 AI와 상의합니다. 어떨 땐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고민까지 상담합니다. AI는 긴 논문과 자료를 힘들여 읽지 않아도 요약해 핵심을 알려 줍니다. 인간의 영역으로 거침없이 들어오는 AI를 보고 있자면 감탄과 두려움이 동시에 듭니다.

얼마 전에는 92년간 인간이 못 푼 수학 문제를 AI가 단 88시간 만에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AI가 답을 찾아냈다는 것과 인간이 그 문제를 이해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미국 UCLA의 테렌스 타오 교수는 "AI가 답을 내는 속도 자체보다 그 답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AI 시대에는 답을 얻는 능력보다 그 답 가운데 무엇이 의미 있고 옳은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귀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인문계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세기 프랑스가 낳은 천재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이유보다 스스로 발견한 이유에 더 쉽게 설득된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남이 준 답은 쉽게 잊히고 내가 찾은 답은 평생 간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행동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부딪히고 실패를 반복하며 어렵게 찾아내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AI에 열광하는 것은 대개 진득한 경험을 통해 얻는 답보다 빠른 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답은 그 속도만큼 빠르게 잊혀집니다. 그렇게 하면 시험은 잘 치겠지만 실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래 남는 답이 실력입니다. 실력은 시행착오와 시간과 노력이 겹겹이 쌓인 만큼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로마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문명과 나라들로부터 장점을 흡수하고 배우고 발전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대한 제국이 되자 그들은 점령국에서 끌어온 노예들에게 모든 일을 시키고, 자기들은 사치스러운 파티를 즐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자, 군인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노예들에게 힘든 일을 다 시키니까 당장은 편했지만, 로마 시민들은 점점 스스로 생각하거나 몸을 움직여 일하는 능력을 잃어 가게 되었습니다. 야만족의 침입을 받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부터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실력이 없어진 주인은 곧 노예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AI 시대 주도권을 지키려면 AI 없이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따뜻한 감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깊이 있는 인품이 앞으로는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힘에서 나오며, 이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AI 시대의 거친 파도를 너끈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한 홍

2026
10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역대상] 하나님이 네 앞에서 나아가시리라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패션관 10층 새로운홀



새로운교회
SAEROUN CHURCH

2026. 10

SAEROUN QT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7	28	29	30	1	2	3 개천절
4	5 대체휴일	6	7	8	9 한글날	10 열린음악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새로운대화스쿨 개강 아기학교 개강
11 새가족 135기 1주차	12	13	14	15 구도자 커브 개강	16 패밀리 임팩트 개강	17
18 전도축제 '행복을 드립니다'	19	20	21	22	23	24
25 예이비 양육과정 수료식	26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	27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	28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	29 에버그린 야유회	30 금요찬양집회	31 홀리윈 축제

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6. 10

1	목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4-20
2	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빌 4:21-23
3	토	[개천절]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시 72:1-14
4	주일	열두 제자를 세우시다	막 3:7-19
5	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 15:9-17
6	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상 10:1-14
7	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대상 11:1-9
8	목	다윗의 용사들	대상 11:10-19
9	금	[한글날] 말씀을 밝히 아는 기쁨	느 8:1-12
10	토	하나님이 붙여 주시는 사람들	대상 12:1-2,8,14-22
11	주일	예수 vs 귀신의 왕	막 3:20-30
12	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요일 3:1-10
13	화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다	대상 12:23,38-40
14	수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	대상 13:1-8
15	목	두려움이 된 임재, 복이 된 임재	대상 13:9-14
16	금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왕	대상 14:1-7
17	토	하나님이 네 앞에서 나아가시리라	대상 14:8-17
18	주일	[전도주일] 행복을 드립니다	시 126:1-6
19	월	눈을 들어 추수할 때를 보라	요 4:28-42
20	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상 15:1-4,11-15
21	수	순종으로 회복한 예배의 기쁨	대상 15:25-16:6
22	목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대상 16:7-22
23	금	예배, 세상을 향한 선포	대상 16:23-36
24	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대상 16:37-43
25	주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막 3:31-35
26	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라	엡 2:11-22
27	화	[특별설교] 주라, 그리하면...	눅 6:38
28	수	[특별설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마 9:35-38
29	목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대상 17:1-15
30	금	은혜 앞에 드리는 다윗의 찬양	대상 17:16-27
31	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대상 18:1-14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SAEROUN QT

01

목요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4-20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Yet it was good of you to share in my troubles.

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Moreover, as you Philippians know, in the early days of your acquaintance with the gospel, when I set out from Macedonia, not one church shared with me in the matter of giving and receiving, except you only;

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for even when I was in Thessalonica, you sent me aid more than once when I was in need.

17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Not that I desire your gifts; what I desire is that more be credited to your account.

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and have more than enough. I am amply supplied, now that I have received from Epaphroditus the gifts you sent. They are a fragrant offering, an acceptable sacrifice, pleasing to God.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n Christ Jesus.

2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To our God and Father b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02

금요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빌 4:21-23

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Greet all God's people in Christ Jesus.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with me send greetings.

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All God's people here send you greetings, especially those who belong to Caesar's household.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Ame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3

토요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시 72:1-14

1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Endow the king with your justice, O God, the royal son with your righteousness.

2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May he judge your people in righteousness, your afflicted ones with justice.

3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May the mountains bring prosperity to the people, the hills the fruit of righteousness.

4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May he defend the afflicted among the people and save the children of the needy; may he crush the oppressor.

5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May he endure as long as the sun, as long as the moon, through all generations.

6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May he be like rain falling on a mown field, like showers watering the earth.

7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In his days may the righteous flourish and prosperity abound till the moon is no more.

8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May he rul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9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May the desert tribes bow before him and his enemies lick the dust.

10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May the kings of Tarshish and of distant shores bring tribute to him. May the kings of Sheba and Seba present him gifts.

11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May all kings bow down to him and all nations serve him.

12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For he will deliver the needy who cry out, the afflicted who have no one to help.

13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He will take pity on the weak and the needy and save the needy from death.

14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He will rescue them from oppression and violence, for precious is their blood in his sight.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04

주일

열두 제자를 세우시다

막 3:7-19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Jesus withdrew with his disciples to the lake, and a large crowd from Galilee followed.

8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When they heard about all he was doing, many people came to him from Judea, Jerusalem, Idumea, and the regions across the Jordan and around Tyre and Sidon.

9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Because of the crowd he told his disciples to have a small boat ready for him, to keep the people from crowding him.

10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For he had healed many, so that those with diseases were pushing forward to touch him.

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Whenever the impure spirits saw him, they fell down before him and cried out, "You are the Son of God."

12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But he gave them strict orders not to tell others about him.

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called to him those he wanted, and they came to him.

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He appointed twelve 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15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and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16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These are the twelve he appointed: Simon (to whom he gave the name Peter),

17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o them he gave the name Boanerges, which means "sons of thunder"),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Andrew,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Thaddaeus, Simon the Zealot

19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SAEROUN QT

05

월요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 15:9-17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If you keep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 in his love.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My command is this: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o lay down one's life for one's friends.

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so that you might go and bear fruit—fruit that will last—and so that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e Father will give you.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06

화요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상 10:1-14

1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3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4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5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6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7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8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9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10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11 길르앗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12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 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칠 일간 금식하였더라

13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07

수요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대상 11:1-9

1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All Israel came together to David at Hebron and said, "We are your own flesh and blood.

2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In the past, even while Saul was king, you were the one who led Israel on their military campaigns. And the LORD your God said to you, 'You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and you will become their ruler.'"

3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When all the elders of Israel had come to King David at Hebron, he made a covenant with them at Hebron before the LORD, and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Israel, as the LORD had promised through Samuel.

4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David and all the Israelites marched to Jerusalem (that is, Jebus). The Jebusites who lived there

5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said to David, "You will not get in here." Nevertheless, David captured the fortress of Zion—which is the City of David.

6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David had said, "Whoever leads the attack on the Jebusites will become commander-in-chief." Joab son of Zeruiah went up first, and so he received the command.

7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David then took up residence in the fortress, and so it was called the City of David.

8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He built up the city around it, from the terraces to the surrounding wall, while Joab restored the rest of the city.

9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And David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because the LORD Almighty was with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08

목요일

다윗의 용사들

대상 11:10-19

10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These were the chiefs of David's mighty warriors—they, together with all Israel, gave his kingship strong support to extend it over the whole land, as the LORD had promised—

11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this is the list of David's mighty warriors:Jashobeam, a Hakmonite, was chief of the officers; he raised his spear against three hundred men, whom he killed in one encounter.

12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Next to him was Eleazar son of Dodai the Ahohite, one of the three mighty warriors.

13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He was with David at Pas Dammim when the Philistines gathered there for battle. At a place where there was a field full of barley, the troops fled from the Philistines.

14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But they took their stand in the middle of the field. They defended it and struck the Philistines down, and the LORD brought about a great victory.

15 삼십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 쳤더라

Three of the thirty chiefs came down to David to the rock at the cave of Adullam, while a band of Philistines was encamped in the Valley of Rephaim.

16 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At that time David was in the stronghold, and the Philistine garrison was at Bethlehem.

17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David longed for water and said, "Oh, that someone would get me a drink of water from the well near the gate of Bethlehem!"

18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So the Three broke through the Philistine lines, drew water from the well near the gate of Bethlehem and carried it back to David. But he refused to drink it; instead, he poured it out to the LORD.

19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God forbid that I should do this!" he said. "Should I drink the blood of these men who went at the risk of their lives?" Because they risked their lives to bring it back, David would not drink it. Such were the exploits of the three mighty warriors.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말씀을 밝히 아는 기쁨

느 8:1-12

1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 그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맛디댜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라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뱌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앎이라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0

토요일

하나님이 붙여 주시는 사람들

대상 12:1-2, 8, 14-22

1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2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8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14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15 정월에 요단 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16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17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18 그 때에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19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20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대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21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 떼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22 그 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1

주일

예수 vs 귀신의 왕

막 3:20-30

2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Then Jesus entered a house, and again a crowd gathered, so that he and his disciples were not even able to eat.

21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When his family heard about this, they went to take charge of him, for they said, "He is out of his mind."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is possessed by Beelzebul! By the prince of demons he is driving out demons."

23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So Jesus called them over to him and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drive out Satan?

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

26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And if Satan opposes himself and is divided, he cannot stand; his end has come.

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In fact, no one can enter a strong man's house without first tying him up. Then he can plunder the strong man's house.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Truly I tell you, people can be forgiven all their sins and every slander they utter,

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but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be forgiven; they are guilty of an eternal sin."

30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He said this because they were saying, "He has an impure spirit."

SAEROUN QT

12

월요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요일 3:1-10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See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that is what we are! Th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is that it did not know him.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Dear friends,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what we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But we know that when Christ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All who have this hope in him purify themselves, just as he is pure.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Everyone who sins breaks the law; in fact, sin is lawlessness.

5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But you know that he appeared so that he might take away our sins. And in him is no sin.

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No one who continues to sin has either seen him or known him.

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Dear children, do not let anyone lead you astray. The one who does what is right is righteous, just as he is righteous.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The one who does what is sinful is of the devil, because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because God's seed remains in them; they cannot go on sinning, because they have been born of God.

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This is how we know who the children of God are and who the children of the devil are: Anyone who does not do what is right is not God's child, nor is anyone who does not love their brother and sister.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3

화요일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다

대상 12:23, 38-40

23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These are the numbers of the men armed for battle who came to David at Hebron to turn Saul's kingdom over to him, as the LORD had said:

38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All these were fighting men who volunteered to serve in the ranks. They came to Hebron fully determined to make David king over all Israel. All the rest of the Israelites were also of one mind to make David king.

39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The men spent three days there with David, eating and drinking, for their families had supplied provisions for them.

40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잇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Also, their neighbors from as far away as Issachar, Zebulun and Naphtali came bringing food on donkeys, camels, mules and oxen. There were plentiful supplies of flour, fig cakes, raisin cakes, wine, olive oil, cattle and sheep, for there was joy in Israe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4

수요일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

대상 13:1-8

1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David conferred with each of his officers,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2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He then said to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If it seems good to you and if it is the will of the LORD our God, let us send word far and wide to the rest of our people throughout the territories of Israel, and also to the priests and Levites who are with them in their towns and pasturelands, to come and join us.

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Let us bring the ark of our God back to us, for we did not inquire of it during the reign of Saul."

4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The whole assembly agreed to do this, because it seemed right to all the people.

5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랏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So David assembled all Israel, from the Shihor River in Egypt to Lebo Hamath, to bring the ark of God from Kiriath Jearim.

6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므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David and all Israel went to Baalah of Judah (Kiriath Jearim) to bring up from there the ark of God the LORD, who is enthroned between the cherubim—the ark that is called by the Name.

7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They moved the ark of God from Abinadab's house on a new cart, with Uzzah and Ahio guiding it.

8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David and all the Israelites were celebrating with all their might before God, with songs and with harps, lyres, timbrels, cymbals and trumpet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5

목요일

두려움이 된 임재, 복이 된 임재

대상 13:9-14

9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When they came to the threshing floor of Kidon, Uzzah reached out his hand to steady the ark, because the oxen stumbled.

10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Uzzah, and he struck him down because he had put his hand on the ark. So he died there before God.

11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 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Then David was angry because the LORD's wrath had broken out against Uzzah, and to this day that place is called Perez Uzzah.

12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David was afraid of God that day and asked, "How can I ever bring the ark of God to me?"

13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He did not take the ark to be with him in the City of David. Instead, he took it to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14 하나님의 궤가 오벧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The ark of God remained with the family of Obed-Edom in his house for three months, and the LORD blessed his household and everything he ha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6

금요일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왕

대상 14:1-7

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Now Hiram king of Tyre sent messengers to David, along with cedar logs, stonemasons and carpenters to build a palace for him.

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앎이었더라

And David knew that the LORD had established him as king over Israel and that his kingdom had been highly exalted for the sake of his people Israel.

3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In Jerusalem David took more wives and became the father of more sons and daughters.

4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These are the names of the children born to him there: Shammua, Shobab, Nathan, Solomon,

5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Ibhar, Elishua, Elpelet,

6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Nogah, Nepheg, Japhia,

7 엘리사마와 브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Elishama, Beeliada and Eliphele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17

토요일

하나님이 네 앞에서 나아가시리라

대상 14:8-17

8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When the Philistines heard that David had been anointed king over all Israel, they went up in full force to search for him, but David heard about it and went out to meet them.

9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Now the Philistines had come and raided the Valley of Rephaim;

10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so David inquired of God: "Shall I go and attack the Philistines? Will you deliver them into my hands?" The LORD answered him, "Go, I will deliver them into your hands."

11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So David and his men went up to Baal Perazim, and there he defeated them. He said, "As waters break out, God has broken out against my enemies by my hand." So that place was called Baal Perazim.

12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 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The Philistines had abandoned their gods there, and David gave orders to burn them in the fire.

13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Once more the Philistines raided the valley;

14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so David inquired of God again, and God answered him, "Do not go directly after them, but circle around them and attack them in front of the poplar trees.

15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marching in the tops of the poplar trees, move out to battle, because that will mean God has gone out in front of you to strike the Philistine army."

16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So David did as God commanded him, and they struck down the Philistine army, all the way from Gibeon to Gezer.

17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So David's fame spread throughout every land, and the LORD made all the nations fear him.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8

주일

[전도주일]

행복을 드립니다

시 126:1-6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When the LORD restored the fortunes of Zion, we were like those who dreamed.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Our mouths were filled with laughter, our tongues with songs of joy. Then it was said among the nations,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are filled with joy.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Restore our fortunes, LORD, like streams in the Negev.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Those who sow with tears will reap with songs of joy.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Those who go out weeping, carrying seed to sow, will return with songs of joy, carrying sheaves with them.

SAEROUN QT

19

월요일

눈을 들어 추수할 때를 보라

요 4:28-42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9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1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0

화요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상 15:1-4, 11-15

1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After David had constructed buildings for himself in the City of David, he prepared a place for the ark of God and pitched a tent for it.

2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Then David said, "No one but the Levites may carry the ark of God, because the LORD chose them to carry the ark of the LORD and to minister before him forever."

3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David assembled all Israel in Jerusalem to bring up the ark of the LORD to the place he had prepared for it.

4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He called together the descendants of Aaron and the Levites:

11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Then David summoned Zadok and Abiathar the priests, and Uriel, Asaiah, Joel, Shemaiah, Eliel and Amminadab the Levites.

12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He said to them, "You are the heads of the Levitical families; you and your fellow Levites are to consecrate yourselves and bring up the ark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to the place I have prepared for it.

13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It was because you, the Levites, did not bring it up the first time that the LORD our God broke out in anger against us. We did not inquire of him about how to do it in the prescribed way."

14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So the priests and Levites consecrated themselves in order to bring up the ark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15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And the Levites carried the ark of God with the poles on their shoulders, as Moses had commanded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the LORD.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1

수요일

순종으로 회복한 예배의 기쁨

대상 15:25-16:6

25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So David and the elders of Israel and the commanders of units of a thousand went to bring up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from the house of Obed-Edom, with rejoicing.

26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Because God had helped the Levites who were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seven bulls and seven rams were sacrificed.

27 다윗과 및 궤를 멘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 에봇을 입었고

Now David was clothed in a robe of fine linen, as were all the Levites who were carrying the ark, and as were the musicians, and Kenaniah, who was in charge of the singing of the choirs. David also wore a linen ephod.

28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So all Israel brought up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with shouts, with the sounding of rams' horns and trumpets, and of cymbals, and the playing of lyres and harps.

29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As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was entering the City of David, Michal daughter of Saul watched from a window. And when she saw King David dancing and celebrating, she despised him in her heart.

1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They brought the ark of God and set it inside the tent that David had pitched for it, and they present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before God.

2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After David had finished sacrificing the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he blessed the people in the name of the LORD.

3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Then he gave a loaf of bread, a cake of dates and a cake of raisins to each Israelite man and woman.

4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He appointed some of the Levites to minister before the ark of the LORD, to extol, thank, and praise the LORD, the God of Israel:

5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맛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벧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Asaph was the chief, and next to him in rank were Zechariah, then Jaaziel, Shemiramoth, Jehiel, Mattithiah, Eliab, Benaiah, Obed-Edom and Jeiel. They were to play the lyres and harps, Asaph was to sound the cymbals,

6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and Benaiah and Jahaziel the priests were to blow the trumpets regularly befo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2

목요일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대상 16:7-22

7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That day David first appointed Asaph and his associates to give praise to the LORD in this manner:

8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Give praise to the LORD, proclaim his name; make known among the nations what he has done.

9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Sing to him, sing praise to him; tell of all his wonderful acts.

10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Glory in his holy name; let the hearts of those who seek the LORD rejoice.

11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Look to the LORD and his strength; seek his face always.

12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13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Remember the wonders he has done, his miracles, and the judgments he pronounced, you his servants, the descendants of Israel, his chosen ones, the children of Jacob.

14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He is the LORD our God; his judgments are in all the earth.

15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He remembers his covenant forever, the promise he made, for a thousand generations,

16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the covenant he made with Abraham, the oath he swore to Isaac.

17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He confirmed it to Jacob as a decree, to Israel as an everlasting covenant:

18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To you I will give the land of Canaan as the portion you will inherit."

19 그 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When they were but few in number, few indeed, and strangers in it,

20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they wandered from nation to nation, from one kingdom to another.

21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He allowed no one to oppress them; for their sake he rebuked kings:

22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Do not touch my anointed ones; do my prophets no har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3

금요일

예배, 세상을 향한 선포

대상 16:23-36

23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5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26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27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28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0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3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32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33 그리 할 때에 숲 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3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5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36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4

토요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대상 16:37-43

37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David left Asaph and his associates befo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to minister there regularly, according to each day's requirements.

38 오벧에돔과 그의 형제 육십팔 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벧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He also left Obed-Edom and his sixty-eight associates to minister with them. Obed-Edom son of Jeduthun, and also Hosah, were gatekeepers.

39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David left Zadok the priest and his fellow priests before the tabernacle of the LORD at the high place in Gibeon

40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to present burnt offerings to the LORD on the altar of burnt offering regularly, morning and evening, in accordance with everything written in the Law of the LORD, which he had given Israel.

41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므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With them were Heman and Jeduthun and the rest of those chosen and designated by name to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42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Heman and Jeduthun were responsible for the sounding of the trumpets and cymbals and for the playing of the other instruments for sacred song. The sons of Jeduthun were stationed at the gate.

43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Then all the people left, each for their own home, and David returned home to bless his famil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5

주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막 3:31-35

31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Then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Standing outside, they sent someone in to call him.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A crowd was sitting around him, and they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outside looking for you."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he asked.

3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Then he looked at those seated in a circle around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SAEROUN QT

26

월요일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라

엡 2:11-22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Therefore, remember that formerly you who are Gentiles by birth and called "uncircumcised" by those who call themselves "the circumcision" (which is done in the body by human hands)—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remember that at that time you wer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citizenship in Israel and foreigners to the covenants of the promis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away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the two groups one and has destroyed the barrier,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by setting aside in his flesh the law with its commands and regulations.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humanity out of the two, thus making peace,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and in one body to reconcile both of them to God through the cross, by which he put to death their hostility.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He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who were far away and peace to those who were near.

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to the Father by one Spirit.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stranger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also members of his household,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stone.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And in him you to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7

화요일

주라, 그리하면...

눅 6:38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8

수요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마 9:35-38

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Jesus went through all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29

목요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대상 17:1-15

1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2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3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5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7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9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0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30

금요일

은혜 앞에 드리는 다윗의 찬양

대상 17:16-27

16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7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18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19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0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21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22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3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4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25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6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31

토요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대상 18:1-14

1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2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3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 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4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5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6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7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9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10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11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12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인지라

13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4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개인기도제목 - 1주차

날짜	기도제목	응답

개인기도제목 - 2주차

날짜	기도제목	응답

개인기도제목 - 3주차

날짜	기도제목	응답

개인기도제목 - 4주차

날짜	기도제목	응답

2026.
10

순예배 가이드

01

1. **10월 첫째 주(10/4-10)**
   예수 vs 귀신의 왕 (막 3:20-30)

2. **10월 둘째 주(10/11-17)**
   행복을 드립니다 (시 126:1-6)

3. **10월 셋째 주(10/18-24)**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막 3:31-35)

4. **10월 넷째 주(10/25-3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막 4:1-20)

5. **11월 첫째 주(11/1-7)**
   등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막 4:21-25)

01

[순예배 가이드] 10월 첫째 주(10/4-10)

예수 vs 귀신의 왕

막 3:20-30

지난주 본문 요약 | 열두 제자를 세우시다 (막 3:7-19)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따라다녔으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고, 산에 오르사 열 두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2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Then Jesus entered a house, and again a crowd gathered, so that he and his disciples were not even able to eat.

21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When his family heard about this, they went to take charge of him, for they said, "He is out of his mind."

관찰/해석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is possessed by Beelzebul! By the prince of demons he is driving out demons."

23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So Jesus called them over to him and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drive out Satan?

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

26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And if Satan opposes himself and is divided, he cannot stand; his end has come.

* **바알세불(22절):** 구약 시대 블레셋이 섬기던 '바알세붑'의 헬라어 발음으로, 신약에서는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별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관찰/해석

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In fact, no one can enter a strong man's house without first tying him up. Then he can plunder the strong man's house.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Truly I tell you, people can be forgiven all their sins and every slander they utter,

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but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be forgiven; they are guilty of an eternal sin."

30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He said this because they were saying, "He has an impure spirit."

*** 모독하다(29절):** '침범하여 욕되게 하다'라는 뜻이며, 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불경죄를 가리킵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 때, 마주하는 모든 조롱과 무지, 편견 앞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주옵소서.
2. 교회와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고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3.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주권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막 3: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순예배 가이드] 10월 둘째 주(10/11-17)

02 행복을 드립니다

시 126:1-6

지난주 본문 요약 | 예수 vs 귀신의 왕 (막 3:20-30)

예수께서 친족들에게는 미쳤다는 오해를, 서기관들에게는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들으셨으나,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반박하시고 성령 모독죄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When the LORD restored the fortunes of Zion, we were like those who dreamed.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Our mouths were filled with laughter, our tongues with songs of joy. Then it was said among the nations,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are filled with joy.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Restore our fortunes, LORD, like streams in the Negev.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Those who sow with tears will reap with songs of joy.

관찰/해석

관찰/해석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Those who go out weeping, carrying seed to sow, will return with songs of joy, carrying sheaves with them.

적 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주께서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2. 고난의 때에도 낙심치 않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약속과 사명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시 126: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순예배 가이드] 10월 셋째 주(10/18-24)

03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막 3:31-35

지난주 본문 요약 | 행복을 드립니다 (시 126:1-6)

시인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여호와의 큰일과 구원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 단을 거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31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Then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Standing outside, they sent someone in to call him.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A crowd was sitting around him, and they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outside looking for you."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he asked.

3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Then he looked at those seated in a circle around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관찰/해석

관찰/해석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어떠한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혈연관계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진정한 형제요 자매로 품으며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3. 오직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 말로만 주를 고백하는 자가 아닌,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막 3: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04

[순예배 가이드] 10월 넷째 주(10/25-3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막 4:1-20

지난주 본문 요약 |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막 3:31-35)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하는 곳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Again Jesus began to teach by the lake. The crowd that gathered around him was so large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in it out on the lake, while all the people were along the shore at the water's edge.

2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He taught them many things by parables, and in his teaching said:

3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Listen!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5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7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and choked the plants, so that they did not bear grain.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It came up, grew and produced a crop, some multiplying thirty, some sixty, some a hundred times."

9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Then Jesus said, "Whoever has ears to hear, let them hear."

10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When he was alone, the Twelve and the others around him asked him about the parables.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He told them,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has been given to you. But to those on the outside everything is said in parables

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so that,"'they may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and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otherwise they might turn and be forgiven!'"

관찰/해석

* **비유(2절):** 일상의 경험에 기초하여 잘 알려진 내용을 통해, 영적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음 없는 청중들에게는 감추시기 위해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관찰/해석

13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Then Jesus said to them, "Don't you understand this parable? How then will you understand any parable?

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The farmer sows the word.

15 말씀이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Some people are like seed along the path, where the word is sown. As soon as they hear it, Satan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that was sown in them.

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Others, like seed sown on rocky places, hear the word and at once receive it with joy.

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But since they have no root, they last only a short time.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word, they quickly fall away.

18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Still others, like seed sown among thorns, hear the word;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but the worries of this life, the deceitfulness of wealth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come in and choke the word, making it unfruitful.

20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Others, like seed sown on good soil, hear the word, accept it, and produce a crop—some thirty, some sixty, some a hundred times what was sown."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세상의 염려와 완악함으로 굳어진 마음을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생명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2.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3. 욕심과 정욕, 영적 게으름과 같은 일상의 영역이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막 4:20]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순예배 가이드] 11월 첫째 주(11/1-7)

05 등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막 4:21-25

지난주 본문 요약 |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막 4:1-20)

예수님께서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과 좋은땅의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말씀의 결실을 맺는 비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2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He said to them, "Do you bring in a lamp to put it under a bowl or a bed? Instead, don't you put it on its stand?

* **말(21절):** 곡식, 가루 등 고체나 물, 기름 등 액체 부피를 측량하는 용기(바구니)를 의미합니다.
* **등경(21절):** 등불이 멀리 비치도록 등잔을 올려놓는 대, 혹은 촛대를 의미합니다.

22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For whatever is hidden is meant to be disclosed, and whatever is concealed is meant to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them hear."

24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he continue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and even more.

관찰/해석

관찰/해석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they have will be taken from them."

적 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우리에게 비추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 모든 은밀한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기억하며,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서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3. 세상의 헛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영적 부요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막 4:2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026.
10

세례 및 입교 간증

01

1. 오승민A 성도(뉴젠 고등부)
2. 민세희 성도(W서초공동체)
3. 김숙영C 성도(W강남공동체)



보잘 것 없는 저에게 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승민A 성도(뉴젠 고등부)



저의 신앙생활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친한 형을 따라 나간 교회가 단순히 재밌고 좋아서 인생 첫 전도를 교회에 다니지 않던 아빠에게 하고 그렇게 저희 엄마, 누나까지 저희 가족은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질풍노도의 사춘기, 코로나 19, 지금도 하고 있는 야구, 핑계 댈 게 점점 많아지며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며 그 외면이 1주일, 한 달, 1년 계속되다 결국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전도했던 저희 아빠는 신앙심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루에 한 구절씩만 인상 깊은 구절을 가족 톡방에 올려달라고, 그게 자기한테 힘이 된다고, 교회에 가자고,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매일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아빠 말고 아무도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면서 아빠의 그 말들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 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그 긴 방황의 시기에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죄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새로운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올해 있었던 겨울 수련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수련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교회에 아무 생각과 신앙심 없이 나오던 저에게 전도사님이 "수련회 부조장을 해보지 않겠니?"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별로 거부감이 없던 저는 전도사님께 하겠다고 하고 부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할 게 없을 줄 알았던 부조장이 해보니 준비할 게 너무나도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를 맡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싶진 않아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매일 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며 수련회를 준비하니 점점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그 하나님이 계속 생각났고 마음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저녁 집회가 떠오릅니다. 기도할 때에 전도사님이 저희의 죄를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 죄를 회개하자고 하셨는데, 그때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계속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없이 죄송하다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늦지 않았다고 잘 왔다고 다독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제 삶 속에서도 큰 변화가 찾아왔고 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죄와도 열심히 싸우려 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잡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교회, 고등부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심이 회복되고 저에게 보인 것은 저희 아빠였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저희 아빠가 저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 아빠가 했던 것같이 주님의 복음을 아빠와 저희 가족에게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야 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다가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민세희 성도(W서초공동체)



저는 어릴 적 교회를 다녔지만 잦은 이사와 사춘기를 겪으며 신앙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할 것만 같던 순간, 코로나 시절을 겪으며 저희 집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남편과 같이 일하던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가장 믿고 좋아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 이불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고, 혹여 아이가 들을까, 남편이 미안해 할까 목구멍에 불덩이를 삼킨 듯 신음 한 번 내지 못하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교회에 다니던 지인에게 특별새벽기도회를 소개받게 되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내밀어 주신 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 손을 잡았고,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멈춰 있던 저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판이 시작되었고, 제 기도에 시큰둥하던 남편은 첫 재판 날 멋쩍은 얼굴로 "그동안 기도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나도 기도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시작된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며 억울했던 일들이 전부 풀리고 긴 시간의 괴롭힘에서도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힘든 시간을 지나며 그제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까지 함께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남편과 두 아이들 모두 새로운교회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행복과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전으로 일과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고,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 졌습니다. 또한 남편과 저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교회에 다니면서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은 건강이었습니다. 결혼 후 이전에는 없던, 듣도 보도 못한 병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과 머릿속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뇌동맥류, 수십 개의 갑상선 다발성 낭종,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것은 당장 호흡이 힘들 정도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했던 천식까지, 저는 그야말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안정되고 단란한 가정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늘 아픈 아내와 엄마가 있는 우울하고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 대면예배를 드리고 순예배도 드리면서 어느 순간 놀랍게도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호흡기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천식이 좋아졌고, 대장염 약은 중단했으며, 얼마 전 갑상선 양성종양이 의심되어 받은 세포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을 정확히 멈춰 주셨다는 느낌을 너무나 강하게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례를 받는 저의 각오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앞으로는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 완벽한 삶은 아니겠지만 넘어지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혼자의 신앙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김숙영C 성도(W강남공동체)



저는 8살 때 동네로 이사 온 7살 동생에게 “언니, 우리 교회 갈래?”라는 말을 들으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저에게는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고 주변에 믿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혼자 버둥버둥 매달려보려고 하다 실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0대 후반에 ‘아, 내가 지옥 속에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소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본 적도 없는, 하지만 제 주변 유일한 크리스천인 한 남자 사람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해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저의 신앙적인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 친구는 “예배에 꼭 참석하고 공동체에 속하라”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했고 그 친구는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다니고 있던 새로운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신앙 1세대였는데,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 친구분과 작전회의를 하면서 본가 근처인 새로운교회를 추천 받아 옮기게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청년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 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청년부에서 진장으로 섬겼고 저희는 각자 CES, 결혼교실을 들으며 신앙을 키워갔고 한 홍 담임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사랑하는 딸 시아를 보내 주셨습니다.

시아를 만나고 엄마가 된 지금,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더불어 교회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받았던 그 씨앗이 된 섬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던 목사님과 남편, 그리고 새로운교회 청년부 친구들의 진실된 중보와 우리 직여6순 자매님들과의 교제 등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시아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기도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시아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를 통해 시아의 믿음을 부모인 저희가 대신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로서 시아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머리에 두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이 시아를 통해 양가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온 저희 부부가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저희의 아이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
10

베트남 아웃리치 간증

02

1. 김진희B 성도(우면공동체)
2. 김현중B 집사(N서초공동체)



나를 변화시키는 선교

김진희B 성도(우면공동체)



이번 베트남 선교는 새로운교회의 첫 베트남 선교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생애 첫 선교였기에 더욱 뜻깊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모임 때는 생각보다 적은 선교팀 인원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팀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일당백의 영적 스승님들이셨습니다.

제가 맡은 섬김은 말 그대로 '섬김 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작은 섬김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역할을 맡겨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구디백과 기프트 박스를 하나하나 준비하며 받으실 신학생분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팀원들을 위한 간식을 챙기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저희는 총 14명의 팀원으로 베트남에 갔습니다. 작은 인원이었지만 정말 든든한 팀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불평보다 감사가 많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노이 북부신학교에서 진행된 CES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학생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비전과 소망을 심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매일 저녁 CES 강의 후 신학생분들과 함께 드렸던 통성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팀원들과 베트남의 신학생들이 손을 맞잡고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아픔, 외로움과 노고가 고스란히 전해져 저도 모르게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트남과 그곳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베트남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심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 땅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잊지 못할 순간은 특송이었습니다. 영어 찬양인 'Draw Me Close'를 부르게 되었는데, 찬양을 선곡하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저의 고백이자,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새로운교회에서 드리는 저의 첫 특송이었기에 많이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력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맡겨 드렸고, 찬양의 제목처럼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문화교류의 밤을 통해서는 언어도, 문화도,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울려 퍼지던 찬양은 참 아름다웠고,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LOVE Vietnam 선교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시기보다 오히려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왜 부족한 저를 첫 선교지로 보내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LOVE Vietnam,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트남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 베트남

김현중B 집사(N서초공동체)



4월경 베트남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만 해도 베트남에 대해 특별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베트남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가성비 좋은 관광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현지 사역자분들을 만나고 나면서 베트남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베트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사랑하시는 땅이며, 앞으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선교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현지 사역자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현지 사역자분들은 주로 산악지방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출신의 사역자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분들의 삶과 환경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CES 강의를 사모하며 말씀을 배우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서로 모습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 베트남 땅에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베트남의 영혼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있었던 Blessing Night 전도 집회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교회 청년부와 현지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베트남 여성 봉사단, 그리고 새로운교회 선교팀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참석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람들을 연결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길을 열어 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CES 과정에 참여했던 현지 사역자분들도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시며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만남이 단순히 한 번의 선교 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실 만남과 사역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베트남 선교가 기대됩니다. 베트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 만난 사역자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트남 땅에 복음이 더욱 힘 있게 흘러가고, 그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을 소망합니다.

LOVE Vietnam!

2026.
10

캄보디아 아웃리치 간증

03

1. 배수종 집사(강북공동체)
2. 권진숙 권사(C강남공동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마중물

배수종 집사(강북공동체)



먼저 부족한 저를 은혜로운 선교의 자리에 쓰임 받게 하시고, 캄보디아 아웃리치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통해 CES 멘토로 섬기게 되면서, 캄보디아의 희망적인 미래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멘토로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섬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CES를 시작하고 멘티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CES 멘티로 만난 온누리 사모님, 쓰라이리아 선생님, 그리고 통역을 맡아 주신 쌀리 선생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제게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분명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분들이었기에 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과 믿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멘티들의 모습을 보면서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캄보디아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짧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CES를 진행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CES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도 짧았고 모든 것을 충분히 나누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새로운교회와 캄보디아 선교팀에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제가 그 역사의 작은 마중물로 쓰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에 일어날 다음 세대의 부흥

권진숙 권사(C강남공동체)



가장 먼저 CES 멘토로써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과연 내가 멘토링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쉽지 않은 CES를 통역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짧은 시간 안에 12과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셨고, 그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12과를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진행해야 했기에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부터 힘들었고,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 목도 아프고 몸도 많이 지쳤습니다. 때로는 '과연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움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통역사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보완해 주셨고, 멘티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CES의 내용을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게 하셨기에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CES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경험했던 간증을 나누고,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부흥하기를 함께 꿈꾸는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매 과목을 진행할 때마다 멘티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했고,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려는 모습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아웃리치는 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돌아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캄보디아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일에 저를 작은 도구로 참여하게 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의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CES 멘토로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한 선교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메모

MEMO



메모

메모

♡ 2026 전도축제

행복을 드립니다

Happiness for You

10.18 (주일)

1-3부 예배 | 새로운교회

문의: 김대훈 목사, 카톡 ID: saerounchurch



Wednesday Prayer Worship

10월 수요기도예배 영혼구원(전도)

10/7 최지훈 목사

10/14 김도형 목사

10/21 이승호 목사

10/28 백은실 권사 (글로벌 커피브레이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낮 12시 **장소** 새로운홀(패션관 10층)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새로운교회
saeroun church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 영관 10층 새로운교회 본당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